

산재예방 서비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똑똑해진다

- 공단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계획 수립...4대 추진전략, 24개 추진과제 발굴
- 국민편의 증진,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등 추진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 산재예방 서비스 구현 노력이 추진된다.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24개 세부과제 시행에 나선다.

4대 추진전략은 ①국민 편의 중심, 산재예방 허브 ②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사업 수행 ③민관이 함께하는 성장 ④안전한 산재예방 서비스 환경이다.

주요 추진 세부과제는 ▲ 약 50여종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 구축 ▲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위험 사업장 예측 분석 및 실시간 안전대책 제공 ▲ 플랫폼 종사자 대상 지역별 기상정보 등 맞춤형 정보제공 확대 ▲ 종이 없는 산재예방서비스 구현 ▲ 사물인터넷(IoT) 기술에 의한 고위험 사업장 화학물질 노출수준 실시간 모니터링 ▲ 산재예방 관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 등이다.

공단은 이번 산재예방 디지털플랫폼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추진과제 발굴을 시작했으며, 시민참여 혁신단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달 말 세부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디지털로 변화하는 공단

국민편의 중심	산재예방 종합 포털 한 곳에서, 한 번에 정보조회·민원처리·맞춤추천 	종이 없는 사업·교육 종이 없는 사업 신청 「사업 접수는 온라인으로,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은 모바일로」 종이 없는 스마트 교육원 「스마트 전자 칠판 도입, 태블릿/전자책으로 수업」 	
	AI One-Shot 서비스 사업장에서 작업사진을 업로드하면 위험요인과 대책 자동 제시 	지능공사 작업자 추락 예방 AI 영상분석기술로 지붕 위험도 자동판정 	사고발생 상황도 자동생산 AI로 학습한 사고발생 상황도 제작·대국민 개방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산재예방 마스터 데이터 구축 공단 고유 마스터 데이터 구축(최초) 「산재예방 종합포털에 적용하고 과학적 사업수행 기반 마련」 		산업보건 DB 연계 대내외 건강정보 데이터를 연계하여 산업보건 빅데이터 구축 「계층별 맞춤형 정보 제시와 직업별 모니터링·발굴」 
데이터 융합·개방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인증 획득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공인 인증 (ISMS-P) 취득 		통합 로그관리 시스템 구축 산재예방 시스템 모든 로그를 통합하여 한 곳에서 확인 「위험 트래픽을 선제적으로 차단」 
안전한 서비스 환경			

본 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산재예방 서비스에 다양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단은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해당 과제를 공유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홈페이지·전광판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계획으로 공단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과학적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산재예방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디지털전략실 디지털계획부	책임자	부 장	박동언 (052-703-0571)
		담당자	차 장	양수빈 (052-703-0572)